

출판계 궁극한 일, '이것이 알고 싶다'

긴급지원금·부도 도매상 처리 등 출판계 현안을 둘러싼 뒷이야기

이즈음 출판계 움직임은 어느 해보다 긴박하다. 연초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굼직한 도매상의 잇따른 부도와 그의 처리, 정부지원금 활용에 대한 출판계 내부의 의견조정 과정, 불황을 틈탄 신간 할인판매의 불길 등. 그런 가운데 문화상품권 등장으로 도서상품권과 미묘한 갈등을 보이거나, 마냥 시간을 끌어오던 출판단지 조성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드러나는 등 물밑 변동도 있었다. 일련의 출판계 움직임의 속사정을 살펴본다.



독일 유통기구 '바조티먼트' 창고의 자동화한 모습. 정부의 긴급지원금 일부는 출판유통구조 현대화에 쓰인다.

유통현대화 부문에 130억원 지원키로 양서출판 지원신청, 6월 첫주까지 연장

출판계 긴급지원(용자)금 500억원의 활용 방안 윤곽이 드러났다. '출판계 긴급자금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출판유통구조 현대화 및 정보·전산화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유입한 문예진흥기금 200억원 가운데 우선 한국출판유통(주)(대표이사 박기봉)에 90억원, 한국출판협동조합(이사장 박기봉)에 40억원을 유통구조 현대화 사업부문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금은 특히 전산망 확충·컨베이어시스템 설치·바코드 도입·입출고 관리시스템 도입 등 물류시스템 구축에 집중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나머지 70억원은 정보·전산화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 또다른 유통구조 현대화 사업 및 양서출판에 지원한다. 또한 재경부에서 유입된 300억원은 전액 양서출판에 지원된다.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와 한국출판금고(이사장 김낙준)는 지원금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 지난 5월 18일부터 23일까지 신청서를 받았다. 접수결과 170~150억을 지원하기로 했던 출판유통구조 현대화 부문에 한국출판유통(주)·한국출판협동조합·청운서림·송인서적(송인서림과 한고서적의 합병)·한국기독교출판유통 등 5곳이 모두 300억원을 신청하고, 70~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던 정보·전산화 부문에는 한국출판정보통신(BNK)과 (가칭)도서정보서비스 등 2

곳이 함께 57억원을 신청했다. 양서출판 부문에는 대한고교서주식회사·문학과지성사 등 73곳이 378억원을 신청했다.

출판계 4개 단체장(나춘호·김낙준·박기봉·김경희)과 이중한 한국문화복지협의회 회장, 민병덕 한국출판학회 회장, 박승수 이화여대 공과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3차에 걸친 모임을 가졌다. 지난 5월 25일 1차 회의에서는 양서출판 부문에 좀더 많은 출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6월 5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연장키로 했다.

또 현대화·전산화 부문에서는 신청단체에 미진한 서류를 보충하여 제출토록 요구, 다음날 2차 회의에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대표자 면담 등을 실시했다. 27일 3차 회의에서는 유통구조 현대화부문에서 한국출판유통(주) 90억원, 한국출판협동조합 40억원을 담보능력에 따라 분할 지급하도록 결정했고, 전산화 부문에서는 신청서를 전산·컴퓨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 넘겨 타당성 검토를 의뢰기로 결정했다. 유통구조 현대화 및 전산화는 출판계의 50년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신중히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 심의위원은 "심의에서 가장 중요시한 것은 공공성과 사업실행의 타당성"이라고 밝혔다.

보문당 끝내 청산 절차 밟아 자사이기주의 등으로 처리과정 난맥

국내 최대 출판유통 도매상이었던 보문당의 회생 노력은 끝내 수포로 돌아갈 전망이다. 한양출판판매(주)가 한국출판유통(주)에 합병되고, 고려북스는 채권단에 의해 과도체제로 영업을 재개했으며, 송인서림은 한고서적과의 합병을 통해 회생의 길로 나섰다. 그밖에 그동안 부도를 낸 군소 도매상 30여 곳 가운데 합병 또는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곳도 상당수다.

지난 1월 31일 송인서림을 시작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보문당, 그리고 고려북스까지 부도를 내고 쓰러지자 유통체계는 완전히 마비되고 출판사 피해가 속출했다. 긴급 대책회의를 연 채권단 집행위원회는 부도에 따른 여파를 최소화하고 유통망 마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무엇보다도 3대 도매상으로 일컫는 송인서림·보문당·고려북스의 처리가 관건이었다.

채권단 집행위원회는 송인서림과 고려북스를 합병하고 출판사들이 출자하여 새로운 유통회사를 설립하는 안을 상정했다. 송인서림과 고려북스에 물려 있는 출판사의 채권담감을 조건으로 내세웠으나 관련 출판사들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자 백지화됐다. 채권단 집행위원회가 두차례나 바뀌는 난맥상을 드러냈던 보문당의 지구노력은 끝내 수포로 돌아갈 전망이다. 집행위원회측에서 한국출판유통(주)의 합병 또는 위탁경영을 모색했지만 협상이 결렬됐다.

우여곡절 끝에 고려북스는 오는 8월까지

채권단 집행위가 운영하는 과도체제로 영업을 재개했다. 송인서림은 한고서적과 합병, 부채를 100% 상환하는 조건을 제시하여 관련 출판사들로부터 75%(채권액 기준 88%)의 지지를 얻어 영업을 재개했다. 그러나 부채액이 100억원을 상회하고 있어 정상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보문당은 회생할 수 없는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채권단은 6월 초에 전체회의를 열어 반포과 잔고 처리문제를 안건에 붙여 청산절차를 밟고 3자 인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출판인들은 도매상 부도문제가 지지부진하게 처리된 까닭을 출판사들의 자사이기주의, 소액 채권을 가진 출판사의 무관심, 그리고 채권단 집행위에 대한 불신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출판인들은 유통구조 개선과 출판계의 음성적 거래관행을 혁신할 절호의 기회를 출판인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할인판매 확산 불길 사그라들며 승자없는 싸움에 깊은 생체기만

도매상의 연쇄부도와 학습지 판매시기가 맞물리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본지 233호 참조)됐던 할인판매의 불길에 주춤한 상태다. 아직도 일부 상설할인매장에서는 구서적 중심으로 할인판매를 하고 있고, 출판계 전체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가 파괴의 밑불은 여전히 남아 있다. 출판계의



연초 송인서림 부도로 긴급히 모인 출판인들.

정가제 유지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미 할인 판매의 맛에 익숙해진 구매자들의 움직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할인판매의 불길에 맞불로 작용한 것은 정가제가 무너지면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출판계의 인식 확산이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명분과 실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은 셈이다. 그러나 할인판매는 출판 관련 업계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다.

할인판매에 참여했던 서점들은 대부분 매출부진을 겪었다. 할인판매 열풍이 가장 뜨겁게 불었던 강남과 고양시 지역 서점들은 평균 예년매출의 70%정도에 그쳤다. 한달간 할인판매를 했던 정글북 홍보부 서연정 씨는 "책을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봤다. 정가제를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밝혔다. 강남의 서울문고·진술문고 등도 비슷한 실정이다. 상설 할인판매점인 강남의 서적백화점과 할인판매를 계속하고 있는 일산의 주엽문고 역시 예년 대비 매출이 줄어들었다.

서적백화점 정도현 사장은 "중고서적의 판매는 늘었지만 신간 판매가 부진했다.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부터 구조조정을 해야 할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IMF사태 이후 가계경제의 위축이 매출부진으로 이어졌지만 마진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할인판매에 참여하지 않았던 서울의 대형서점들 역시 10~30%의 매출 부진을 겪었다.

할인판매를 중단한 서점들은 문화강좌, 도서 전시회 등을 개최하며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이미 할인판매에 익숙해진 구매자들의 항변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경쟁적인 할인판매는 출판계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결국 승자 없는 싸움이었음을 증명한 셈이다.

파주출판단지 조성계획 밀그림 드러나 발주공고 거쳐 8월중 공사착공 예정

출판유통의 현대화를 위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이사장 이기웅) 조성계획의 밀그림이 드러났다. 토지공사는 지난 4월 28일 출판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최종 결정, 투자타당성 심의를 통과시켰다. 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공사발주 및 토지분양은 7~11월에 걸쳐 공고할 예정이다.

토지공사 파주직할사업단의 집행계획서에는 공사발주 결정에 따른 공사입찰 공고(6월 10일), 공사입찰(7월 23일), 시공자 확정(8월 17일), 공사착공(8월 24일)순의 일정이 잡혔다. 아울러 하반기에 용지분양 공고·용지분양 계획·용지분양 계약 변경 일정도 들어 있다.

조합원에 대한 분양계약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발면적은 총 109,570평에 이르며, 유통시설·문화시설·출판지구·인쇄지구·지원지구로 나뉜다. 토지배정은 조합원 1개사에 1필지 배정을 원칙으로 지구별·필지 단위별·동일평형 필지별로 배정할 전망



지난 3월 문화상품권이 발매된 이후 도서상품권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다. 토지공사는 기반 시설공사를 시행하여 사용 가능한 토지로 완성·공급하며, 단지 목적에 부합하는 설계도를 제시한 입주자들은 (가칭)출판단지건설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사옥을 건축할 수 있다.

문화상품권 발매로 도서상품권 매출 주춤 '문화'계 두 상품권간 변별력 없어 혼동

문화상품권 발매 직후 도서상품권에 미묘한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 매년 25% 가까운 고속 성장세를 보이던 도서상품권의 매출이 멈춰선 것. 공격적인 판매마케팅에 힘입은 문화상품권의 판매성장으로 문화계에 유일·독점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두 상품권의 치열한 경쟁다툼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3월 16일부터 (주)한국문화진흥(대표 김용찬)이 판매하기 시작한 문화상품권으로 영화·영상·음반·공연예술 등을 구입 또는 관람할 수 있지만 도서를 교환할 수는 없다. 도서교환 상품권은 한국도서보급(주)(대표 송교선)가 발매하는 도서상품권이 유일하다. 하지만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려는 사람들 중에 문화상품권을 내놓는 경우도 흔하다. 교보문고의 한 관계자는 하루에도 몇번씩 문화상품권으로 책을 사려는 독자와 마주친다고 털어놓았다.

두 상품권은 문화를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경쟁적이다. 문화상품권은 6월 1일부터 편의점이나 우체국·은행에서까지 구입할 수 있어 도서상품권 잠재 구매자들을 잠식

할 가능성도 높다. 실제 문화상품권 판매 이후 연매출 700억원 이상을 올리던 도서상품권 매출이 0.4% 줄었다. IMF체제하에서 일반상품권 전체의 매출이 28% 가량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 호황을 누리는 것이지만 일단 성장을 멈췄다는 데 관계자들은 주목한다. 문화상품권 발매 이후 도서상품권의 서점 유입도 줄어들고 있다. 종로서적 기획홍보팀 정광화 대리는 "문화상품권 발매 이후 도서상품권 유입이 10%정도 줄었다"고 밝혔다.

두 상품권의 기능과 상용이 법으로 보호받도록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변별력은 뚜렷하지 못하다. 도서교환을 거부당한 선의의 피해자들은 문화상품권으로 문화의 한 축인 도서를 구입할 수 없다는 것을 좀처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그러다보니 문화상품권으로 도서를 교환해주는 서점도 있다.

고양시 2문고 홍보담당자는 "고객이 내놓는 문화상품권을 받아주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며 얼버무렸다. 출판인들도 도서상품권을 보호해야 할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문화상품권으로 도서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지 않느냐는 태도를 보인다. 구매자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상품권 발매업체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오완진 기자